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요즘 나를 지식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자주 보인다. 분명 다시 지식인들의 한 철 대목이구나 싶다. 지식이 너무 많은 탓인가? 이들은 같은 걱정과 같은 상황을 두고도 서로 다른 해법과 출구를 반복 제시한다. 이 현상은 전염성이 아주 강해서, 평소에는 그렇지 않던 사람마저 아무개 지식 많은 사람에게서 얻어들은 '지식'으로 목정을 높인다. 그리고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데'로 혼계를 시작한다. 모든 것이 간편화되는 시대에는 지식 또한 화려하고, 먹기 좋게 손질된 간편한 인스턴트 지식(정보)에 불과한 것인가? 전에는 자신의 무지를 모르는 것을 가장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 것이 지식인이었다면, 현대 '지식인은 자신이 모르는 것은 지식으로 치지 않는다'는 날카로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식인의 이 민망한 모습에 대한 냉소적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지식인의 모습을 돌아보자.

아는 사람, 지식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특수한 계층으로 존재해 왔다. 앓은 늘 기쁘고 강한 힘을 가진 것이

지식인의 두 얼굴, 소금 또는 찌꺼기

기 때문이다. 하지만 앓은 유용하면서도 위험한 것이다. 그런데 지식인으로 불리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식인 문제를 깊게 다룬 사르트르에 의하면 지식인의 위치는 애매하고 모호하며 이중적이다. 지식인은 권력층과 피지배계급의 사이에 끼여있다. 이 공간에서 지식인은 권력층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과 이론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의 위치를 보장받는다. 결국, 지식인은 각 분야의 '지식 전문가들'로 활동하면서 자신들의 위치에 따른 특권을 누린다. 그러나 사르트르가 말하는 진정한 지식인의 정의는 자신의 아는 진리를 세상과 나누는 사람들이다. 소위 보편적 지식인이다. 그래서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남의 일에 기꺼이 관심을 갖고, 얻을 것이 없음에도 끼어드는 사람이 지식인이다.

한국의 최근 대학 진학률이 70퍼센트가 넘는다니, 웬만하면 다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하게 보면 지식은 지식이 많은 사람, 즉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닌가. 하지만 지식인의 정의는 그의 행위와 연결될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지식인에 대한 인식과 정의가 달라졌다고 해도 그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모든 사람은 지식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사회에서 지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람시의 말처럼 아는 것의 총량으로만 지식인을 정의 할 수 없다. 졸업장이나 지식인의 증거가 될 수 없는 이유다.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현대 사회의 자신들의 알량한 지식을 들고 도떼기시

장에 나온 지식인, 지식 전문가들에 대한 너무나 적나라한 또 다른 비판을 들어보자. 레지 드브레라는 프랑스의 철학자는 지식인을 이렇게 규정한다. "과거의 지식인은 시대를 명료하게 해석해주었지만, 지금의 지식인은 시대의 어둠을 어둠을 더할 뿐이다." 이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둠을 크고 깊게 한다는 이 아픈 말은 사실 우리의 현재 상황이다. 어둠을 걷어 내는 지식과 지식인은 낡은 이념적 유풍과 형식을 반복하면서 지식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 대신 지식인의 의무인 미래가치를 위한 새로운 방향과 담론을 고민하며 탐색한다.

이제 우리가 직업적 지식 기술자와 전문가를 자신의 책무를 행하는 지식인과 구별해야 한다. 책무를 잊고, 도덕적 지적인 자아도취에 취한 지식 전문가들이 바로 플라그 바르트가 말하는 사회의 찌꺼기다. 자신은 스스로 소금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찌꺼기'에 불과한 것이다. 이 과격한 탄식에서 바로 이들이 지식의 권력을 통해서, 전문가의 이름으로 '우리를 쓸모 없는 존재'로 만들어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식인은 태생적으로 결코 혼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관계 속에서만 지식인은 힘을 얻으며, 쓸모없는 '찌꺼기' 또는 지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더욱이 지식인의 이름값은 졸업장, 명성, 훈계와 훈수 두기 등으로 매겨지지 않는다. 이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찌꺼기' 지식인임을 분명히 하며, 거부하는 것이다. 이들이 우리의 쓸모를 한부분 결정하지 못하도록 말이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오솔길을 따라 오른다. 고개를 넘자 숨어있던 절이 고개를 빼꼼 내민다. 마중 온 산안개를 따라 암자에 들어선다.

일주문에서 손을 모은다. 불이(不二)의 공간, 불화? 나를 닮은 석장승이 근엄한 듯 다정하다. 뒷마루 빈 의자에 봄 햇살이 늘어지게 즐기고 스님은 없고 다람쥐, 박새, 바람만이 고적하게 불공을 드리고 있다.

무릎 보러 왔을까. 내가 왜 여기 있지? 아주 잠깐 사이, 길 잃은 아이처럼 멍하게 있는데 "탁탁탁" 묵탁 소리가 내 어깨를 툭툭 친다. 그리고 이내 절을 깨우고, 산을 흔든다.

사는 나날만큼 지인도 많아진다. 그 멧은 군인이고 의사이며, 또 멧은 정치인이다. 선거가 코앞이다. 어떨 때는 환자 편을 들다가도 의사인 친구 말 역시 흘려보내기 힘들다. 어떤 사병 편이었다고도 직업군인 입장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었다가 팔레스타인이 되기도 했다. 간혹 투표지가 여러 개라면 고루 나눠주고 싶다. 우유부단해서인지 미혹해서인지 내 안의 복잡한 요인들이 나를 괴롭힐 때 나는 오늘처럼 간혹 이 외진

절에서 꽃을 흠치다

산사를 찾곤 한다.

탁탁 탁탁, 봄빛이 온 느긋함이 묵탁 소리에 놀라 분주해진다. 비로소 선계에 있음을 문득 깨우친다.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계를 떠나 산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아무리 선계라지만 결국 속세일 밖에 없는 세상, 마치 꿈속에서 사는 삶은 또 얼마나 공허할까.

묵탁 소리는 짝아들고 독경 소리는 높아간다. 세속을 떠난 곳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곳은 속세, 애써 거짖을 진실로 여기며 수없이 자기부정을 통해 도달하려는 그들의 꿈은 또 무엇일까.

저 혼돈, 저 미혹함, 저 번민이 소용돌이치는데 과연 삼매에 들 수 있을까. 길췌 소나무에 등을 기대고 고요속에서 노승의 독경 소리를 듣는다. 저 고독한 싸움, 피가 툭툭 떨어지도록 남자한 구도.

불회사 불화? 운주사 운주? 부처의 회의(懷疑), 스님의 회의(愈疑)는 무릇 그런 것,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리 치열한 적과 아군이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난 내 고민이 얼마나 작고 미미한가. 내 일상이 또 얼마나 소소한가를 깨닫는다.

연화탑 앞, 꽃이 만개했다. 꽃을 바라보며 삼매에 빠진 노승의 얼굴도 시뻐다. 나만을 위해 사는 우리와 달리 타인을 위한 저 독경, 온 세상을 위한 저 기원, 그가 외는 소원이 미소가 되어 꽃잎처럼 하늘로 퍼지고, 향기처럼 세상 밖으로 뿜어나간다.

그가 이르고자 하는 세상이 여기 운주사 하늘은 아닐까? 햇살에 막 병그는 꽃처럼 마음이 열리고 금방 눈을 뜨는 봄처럼 겨울잠 자던 이성이 방금 막 일어난다. 바람에 그 꽃잎이 날아간 하늘, 그 꽃잎이 도달하는 하늘 끝, 그 완성이 구름 속에 머문 운주(雲住), 법화경 경보탑(내가 머문 운주사 외발이 사라진다-박춘기) 공중의 운주사, 운주가 아닐까.

이념 차이로, 종교가 다르다고 미워하고 죽이는 일이 얼마나 지독한 아상이고 아집인가. 이쪽과 저쪽을 가르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일 또한 얼마나 가소로운가. 사람, 생명을 기준으로 하면 색도 없고 공도 없다. 나머지는 모두 거짓이다. 이게 불이(不二)다.

그들도 저 꽃잎처럼 흑독한 비바람 몇 차례 맞으면 어떨까. 저 꽃은 아마 목숨을 걸었을 터이다. 순한 잎 하나, 향기 한 움큼 얻기 위해 지독하게 자기를 꺾었을 것, 생을 걸고 견뎌낼 것, 그래서 보낼 때 망설임 없었을 것이다.

그 생이별의 생채기에 새삭 하나 움트지 않았던가. 그가 보낸 것은 탐욕이고, 피운 것은 생명 아닐까. 어느 불날의 황홀한 자살, 난무한 꽃잎의 눈부신 이별에서 불이(不二)를 배운다.

꽃을 버린다. 꽃 속에서 빠져나온다. 생과 사가 다르지 않고, 선악, 미추, 시비가 다르지 않으니 사람만을 제일 앞세우기로 한다. 마음이 평온하다. 해탈이 이런 집가.

절에 돌아와 눕는다. 집이 은은하다. 어디에 있을까. 여기저기 주머니를 뒤져거린다. 꽃도 없는데 향기는 어찌 된 일인가. 새소리 물소리는 또 어디에서 오는가. 필시 절에서 빈손으로 왔건만 방안이 향기롭다. 이미 난 절의 꽃들을 몽땅 훔쳐 온 셈이다.

기고



이병열  
4·19민주혁명기념사업회장

올해는 4·19 혁명 64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광주시는 관례를 깨고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현장에서 4·19 혁명 기념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4·19 혁명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처음 민주화 초석을 이룬 역사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이 헌법 전문에 등재돼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4·19 혁명은 32년간 군사정권 통치로 잊혀져 있다.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 빛을 보게됐고 2023년 5월 24일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돼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4·19 혁명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국 대도시 학생과 시민들이 중심이 돼 피흘리며 싸운 사건이다. 186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자유당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제2공화국을 탄생시킨 위대한 민주혁명으로 우리 민족의 민주역량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신재호 선생은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다. 현재 안타까운 것은 국민 대다수가 4·19 역사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 시대의 거물인 4·19 역사를 정치인들이 망각하고 있는 사실은 더욱 안타

헌법 전문과 유네스코에 등재된 4·19혁명

깝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 개혁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 3·1운동 정신과 4·19 민주이념으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모든 폐습과 불의를 타파해 우리들과 우리를 자손의 안전, 자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독립한 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12년간 통치하며 부정부패와 독재정치를 일삼은 게 4·19 혁명의 원인이 됐다. 직접적 원인은 1960년 3월 15일 영구집권을 위한 부정선거다. 당시 자유당은 3인조, 5인조, 투표함 바꾸기 등을 통해 국민 주권을 박탈하고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3·15 부정선거 반대 규탄은 선거무효 선언 후인 12시 40분께 광주 민주당원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고 상여를 맨 채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곡(哭) 민주주의의 장송 데모를 한 데서 시작했다. 1000여명의 시민과 학생이 함께 전남도청을 향해 진행하던 중 금남로에서 경찰과 충돌, 이필호 의원 등 다수가 붙잡혀 갔고 조계현씨가 총대에 맞아 쓰러졌다

3시간 후 마산에서도 3·15 부정선거 반대 시위가 3시 40분과 오후 7시에 두 차례 일어나 마산상고 김주열 학생이 행방불명됐다가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낚시꾼에 의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발견됐다. 이 사건이 전국에 보도되자 경찰의 잔혹성에 전 국민은 분노했다.

의병과 학생독립운동정신인 불의에 항거하는 기질을 갖고 있는 광주는 1960년 4월 18일 광주교 학생 하숙방에서 광고생 11명과 조대부고생 1명이 모의를 했다. 4월 19일 10시30분께 광고생들은 분쇄하고 있는 경찰과 선생님을 뿌리치고 교문을 박차고 나가 광주 4·19 혁명의 서막을 열었다. 시내 광주여고, 광주공고, 광주상고 등 각 고등학교로 달려가 부정선거 무효와 부패한 독재정권 타도 데모에 동참할 것을 간절히 호소, 오후 2시까지 구도청앞 광장과 금남로에 광주학생들이 모여들었다. 맨주먹으로 몸을 던져 참여한 학생과 경찰이 충돌했고 학생 투석전,육탄전에 이어 경찰들은 최루탄, 물대포, 공포탄 등으로 대적했다. 밀고 밀리기를 반복한 끝에 밤 9시 20분께 광주경찰서 앞에 운집한 데모대에 경찰 돌격대가 실탄을 발사, 7명의 사망자와 5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186명의 사망자와 602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민주성지 광주는 4·19 영웅들 상성물인 4·19 민주혁명기념탑을 세웠다. 기념탑에는 당시 참여했던 15개 학교가 아닌, 17개 학교가 기록돼 있는데 2개 학교는 4·19이후 개교한 학교로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다. 4·19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셈이다. 또 4·19기념탑 건립 당시부터 4·19 관계자들은 추모 제단과 거리가 있는 곳에 기념탑을 설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광주시는 지역 최초의 민주화 역사인 4·19를 소외시키고 있다.

광주시는 민주화 도시답게 민주성지 광주를 위해 4·19 영웅들을 위해, 소외된 4·19 역사를 위해, 4·19 민주혁명기념탑을 바로 세워야한다.

社說

역대 최고 총선 사전투표율...표심의 향방은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율이 총선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31.28%로 21대 총선보다 4.59%포인트 올라 30%를 처음으로 넘었다. 특히 호남의 사전투표율이 높았는데 전남이 41.19%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40%대를 넘겼고 이어 전북(38.46%)과 광주(38.00%)가 2, 3위를 차지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더라도 신안이 54.81%로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상위 10곳이 모두 호남이었다.

총선 역사상 최고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 정치권은 아전인수식 해석에 바쁘다. 국민의힘은 '범죄자에 화나 것을 보여줬다'고 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능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자 민생 이슈에 대응 못하는데 대한 성난 민심의 반응이다'고 맞서고 있다.

통상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인 야권에 유리하고 낮은 보수 정권에 유리하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 전국단위 선거에서 모두 여덟 번 사전투표가 실시됐는데 36.93%로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22년 대선에선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사전투표율은 적극 지지층의 참여라는 점에서 볼 때 이번 총선에서 호남이 가장 높고 대구가 가장 낮은 것은 일단 야권 지지층이 투표장에 이른 발걸음을 한 것으로 보인다. 투표하기만 기다린 호남 지역민들의 열망이 높은 사전투표율로 표출됐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야권이 내세우는 정권 심판론이 오는 10일 본 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단하긴 힘들다. 선거는 한쪽으로 가 운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 진영이 결집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사전투표 제도가 익숙해지면서 미리 당겨 투표를 한 후 본 선거일에 개인적인 일을 보려는 성향도 강해지고 있다. 높은 사전투표율에 담긴 표심이 어디로 향했는지 궁금해하기보다 본 선거에 높은 투표 참여로 각자의 마음을 표현하면 될 일이다.

신군부, 광주 학생들 동향 지속 관리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전후 신군부 세력이 지속적으로 광주 학생들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최근 5·18기림재단이 공개한 1980년 5·18 전후 전남대 확장 회의록에 따르면 중앙정보부 등은 전남대에서 시위와 저항 운동이 발생하는 것을 억누르기 위해 학생 회의 등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회의록 내용 중 5월 16일 상황이 눈길을 끈다. 재단은 5월 17일 열린 회의를 기록한 문건에 광주 지역 대학생들과 시민 주도도 열렸던 16일 가두 시위에 대해 '질서 있고 수준이 높았다'고 기록돼 있어 '광주 지역 시위가 격렬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신군부측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5·18 후인 1980년 7월 7일 열린 제22회 확장회의록 중 '개강 대비 대책 및 실적'도 의미있는 자료다. 문건에는 대학 간

의견 교환과 학생 지도의 공동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기관 협의회 기관으로 계엄본소, 505(505 보안대), CIA(중앙정보부) 등이 참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단은 신군부가 1980년 9월 대학가 개강을 앞두고 강력한 대비책을 꾸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1980년 5월 18일 전남대학교 정문 앞 시위가 5월 항쟁을 촉발했기 때문에 전남대 학생들의 시위를 막아야한다는 것이 당시 신군부의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단은 5·18에 대한 학교측의 반응과 학생들의 피해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텔레그램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신군부측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전남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자료 부존재·비공개 등의 이유로 자료를 내놓지 않았는데 온전한 역사 복원을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고(故) 이근희 삼성 회장이 기증한 문화재가 국립중앙박물관 산하 전국 박물관으로 옮겨져 상설 전시된다. 국보, 보물 등 국가 지정문화재 총 13건 107점을 비롯해 모두 936건 2254점이다. 국립부여박물관에 전시될 '전(傳) 논산 청동방울 일괄'은 청동기 시대에 의례나 의식을 행할 때 흔들여 소리를 내던 팔주령(八珠鈴) 등 청동유물이다. 8각형 별모양으로 각 모서리에 방울이 달려 있다. 청동방울 일괄은 국보임에도 명칭에 '전(傳) 논산'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 충남 논산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물의 역설'이 거꾸로 된 명칭이다. 논산 청동방울과 구성품에서 유사하지만 출토지가 명확한 화순 대곡리 청동기 일괄(和順大谷里 靑銅器 一括)에 견줄 때 학문적 가치는 천양지차다. 송실대한국기독교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전 영암 용병 일괄'(傳 靈巖 鎗鎧 一括)은 우리 조상이 청동기를 제작했음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보물이다. 13점으로 이뤄진 거꾸집(용병) 세트는 청동검·꺾창·낚시바늘·갈 등 청동 제품을 만든 도구다. 한반도에서 청동기 문화가 독자적으로 발전했음을 알려주는 유물이지만 역시 출토지가 명확하지 않다. 영암 거꾸집은 1960년대 초 고품질품상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매입을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송실대 박물관 설립자인 김양선 박사가 가치를 알아보고 구입했다. 당시 고품질품상이 '출토지는 전남 영암 독천리'라고 밝혔다고 전해진다. 영암 거꾸집은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재조명됐다. 2003년 화순 백암리에서 발굴된 청동창이 영암 거꾸집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청동창과 거꾸집의 입체 사진을 맞춰 본 결과 딱 들어맞았고 단지 청동창 날의 길이가 거꾸집에 비해 1.4cm 짧았다. 청동창이 의례용이 아니라 실제 사용되면서 마모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에는 청동기를 제작했던 거꾸집이 47점 있다. 대부분 도굴돼 고품질품상의 손길을 거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신구 유물이다. 아쉽게도 우리 문화재를 소홀히 한 결과 고고학적으로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고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보에 붙여진 '전(傳)은 역사를 잃어버린 빼어난 고백이다.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

<b>光州日報</b>		<b>The Kwangju Ilbo</b>	
회장·발행인 <b>金汝松</b>	논설실장 <b>張必洙</b>	편집총괄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항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